

독자 신당 창당 선언한 무소속 천정배 의원 인터뷰

“새로운 비전·인물 찾는데 집중할 것”

독자 신당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23일 “(창당을)최대한 충실히 잘 준비해야 할 계획이며, 새로운 비전을 찾고 새로운 사람을 찾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당 창당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광주를 찾은 천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박주선 의원 및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의 결합 가능성에 대해 “그 분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이 저와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면서 두 세력과의 조조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신당 창당과 관련한 향후 일정은.
▲그냥 정당이 아닌 한국정치를 전면 재구성할 ‘개혁적 국민정당’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충실히 잘 준비할 것이다.
개혁적 가치를 공유하는 각계 전문가들을 규합해 오는 10월 중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적 국민정당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이 때가 적절한 시점이라고 본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널리 듣고,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토론과 활동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주선·박준영 세력과 공조 일러

지역정당 아닌 전국 개혁정당 준비

다음달 추진위 발족 내년 1월 완료

-개혁적 신진인사 영입은 어떻게 되거나.
▲광주 등 호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인사들을 접촉했다. 이 가운데 저와 함께 하기로 한 인사들도 다수 있다. 저는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는 많은 개혁적인 정치 지도자들과 풀뿌리 지도자들에게 함께 신당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 만난 분들을 먼저 소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10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꺼번에 그 인사들을 공개할 계획이다.
-기성정당과도 함께 할 의의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선명한 가치와 비전을 가진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인물들을 모으는 것이다. 절망스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독점, 극소수 기득권 세력의 독점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새롭게 상생의 시대를 열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가진 인사들이어야 한다.
기성 정당과 함께 한다는 것 보다는 기성 정치인 가운데 여당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수구 기득



권 세력의 대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중에도 개혁적인 분이 여러 분 있다. 야권에도 마찬가지다. 그 분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고 나서주신다면 함께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신당 창당을 선언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박주선 의원에 포함되나?
▲그 분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이 저와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그 분들이 어떤 가치와 비전을 추구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그 분들은) 아직까지 추상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실제로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이 공유되고 있는지 앞으로 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금은 그 분들이 하시는 대로 하고,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나중에

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유독 광주와 전남 인사들이 신당 창당을 주도하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크게 보면 정치 혁명의 과정에서 이런 저런 성장통, 산통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기반이 호남이다. 제2의 호남자민련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지역정당이 아닌 전국적 개혁정당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아닌 대한민국을 바꿀 정치혁명에 ‘개혁 호남’이 앞장서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정치를 전면 재구성할 개혁적 국민정당을 만들 것이다. 전국에 있는 신진 인사를 모으고 앞으로 제가 추진하는 신당의 가치와 비전도 단지 호남의 낙후와 소외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사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새누리당 인사들도 현재가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인물을 모을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정치혁명에 동참할 수 있는 가치와 비전, 헌신성, 용기를 가진 분들과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근 전국을 돌며 민심을 들었는데, 신당 창당에 대한 반응은.

기성 정치인 기득권 버리면 함께 해

국민들 정치 변화에 대한 열망 확인

내년 총선때 새 세력에 성원 보낼 것

▲지난 여름부터 대전과 전주, 부산, 제주,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새로운 한국정치의 재구성에 대한 제 구상을 밝히고 민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한국사회의 변화와 좋은 정치에 대한 열망이 호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뜻을 같이할 개혁적 정치인과 신진 인사들을 폭넓게 만났고, 새로운 개혁정치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후보를 낼 계획인가.
▲제 멋대로 ‘천정배당’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서 한국 정치를 재구성할 개혁적 국민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 제 주장은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고, 오늘의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세력에 엄청난 성원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기득권 양당 체제와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이를 압도하는 정당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 위암수술 페이스북에 공개

“시민께 보고 의무… 시민의 알 권리”

윤장현 광주시장이 자신의 위암 수술 사실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시민들이 시장 살림을 맡긴 일꾼인 만큼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는 뜻에서다.

윤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에 1cm 가량의 조기 위암이 확인돼 복강경으로 절제수술을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암 발병 사실을 시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도 살림을 맡긴 일꾼이 어떤 상황인지 알 권리가 있다”며 투병 공개 이유를 밝혔다.

윤 시장은 “작년 6월 종합검진때는 정상이었었고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밀린 시정을 검토하던 중 2주일 전 종합검진에서 암 발병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아는 민선 6기 시장 취임 이후 암이 발병했다는 말로, 격무와 스트레스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윤 시장은 “평생 환자만 치료하며 살아왔던 의사가 처음으로 환자복을 입고 입원해 수술을 받는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수술에 대한 불안함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10일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이 있었다”며 “열심히 운동해서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 잘 이겨 내겠다. 기도를 부탁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윤 시장은 수술이 끝난 뒤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수술을 잘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침 9시 수술방으로 내려가 2시간 반쯤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면서 “열심히 운동해 빨리 회복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시정’이라고 여겼다.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시장의 페이스북 글에는 ‘좋아요’라는 답글이 500여건을 넘었다. /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부적합”

광주시·전남도의회,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광주복지재단 엄기욱 ‘부적격’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공동으로 구성된 ‘광주전남연구원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가 23일 허성관 후보자가 연구원 수장으로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실상 부적격 평가로,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의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한 차례의 공모 무산을 거쳐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장관 출신 명망가까지 청문회에서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향후 광주전남연구원의 출범 절차, 역할과 기능 등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남도의회에서 채택한 경과보고서에서 “광주·전남지역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연구원장 후보자로서 소신과 간절함, 당위성이 부족하고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과 활동, 기초 지식과 정보 부재 등으로 연구원 원장으로 임기 3년 내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 “재산현황 축소나 세금미납, 탈세, 주민등록법 위반, 부당산 투기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고 질

의·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권위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볼 때 연구원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사청문위는 “대학교수와 행정자치부 장관 등 다양한 근무경력과 경력 학사 학위 등을 고려할 때 허 후보자가 운영 리더십이나 네트워크 구축 역량, 일정 수준의 전문성은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허 후보자를 평가했다.

인사청문위는 이날 채택한 경과보고서를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에 전달했으며, 김수삼 이사장은 조만간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와의 조율을 거쳐 최종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초대 광주복지재단 대표 엄기욱(48) 내정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다. 인사특위는 보고서에서 “엄 내정자가 광주정신에 반하는 정치적 편향성과 논문표절, 이중계좌, 청문회 위증 등으로 광주복지재단을 이끌어 갈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능력이 부적격하다”고 결론을 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눈매교정술



졸린 눈, 짝 눈, 눈꼬리가 처진 눈,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비절개 눈매교정술

눈꺼풀을 절개하거나 당기지 않으며,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을 뜨는 근육의 일부를 묶는 방법으로 눈매를 교정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 부기가 적고 회복기간이 짧아, 크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눈 성형은 미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시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술에 익숙한 성형안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과심의원리 제150204-중-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